



님께



**문, 화, 개, 혁,
시, 민, 연, 대**

1999년 9월 18일,
“문화연대”가 뜹니다!

“회원”으로 참여하세요.

<내용안내>

- ‘문화연대’에 대해
- 준비위원 명단(8월 13일 현재)
- 회원 가입서
- 발기인 동의서

1. 회원 및 발기인으로 참여하실 분은 동봉된 ‘회원가입서’와 ‘발기인 동의서’를 올려내어 종이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비는 아래 은행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연대’ 창립행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차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4. 일반시민, 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학생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자세한 문의는 다음으로 연락해주시시오.

문화개혁시민연대(약칭 ‘문화연대’) 준비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4-5 남산빌딩 215호-216호

전자우편: 천리안/하이텔 문화연대

전화: 02-777-0060 간사 서민갑 / 팩스 777-0636

은행계좌: 국민은행 291-01-0005-075 정희섭(문화연대)

1. "어서 오세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참여의 주체입니다.
문화에 관해 무엇이든 발언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먼곳에서 지원해도 좋습니다.
문화의 시대, 창조(창)의 시대에, 삶의 질과 쾌(快)를 높일 수 있는 이곳,
바로 문화개혁시민연대입니다.

당신이 회원에 가입하시면 당신에게 적어도 다섯 가지가 좋습니다.
첫째, 정부 문화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문화사회'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대안적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모두의 문화적 권리를 확장하고 공공문화기반시설을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민 문화 네트워크의 참여와 문화적 자치
를 경험하면서, 당신 자신의 '문화정책'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내외 문화계의 다양한 동정, 정보, 유익한 지식, 예리하고 재미난
비평이 가득찬 '문화연대'의 격주간 신문('문화사회'(가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회원의 혜택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문화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고 당신 삶의 의미도
새롭게 찾아보세요.

2. "새로운 쾌를 찾읍시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개혁의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개혁을 해야만 즐거운 생활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한다는 정부여당은 '사오정' 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은 믿을만합니까? 그들 모두는 온통 권력놀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
야 모두가 이토록 불신받아본 적은 한국 정치사상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관료
들이 똑바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문화를 책임지는 지방자체체가 잘 굴러갑니
까? 아니면 언론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믿을 것이라곤 우리 시민들 스스로의 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가 개혁 주체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영원한 '봉'이 될 것입니다. 문화개혁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삶을 답답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 뿐만 아

나라 문화이기도 합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기술과경제의 붕괴가 아니라 지난 50년간 누적되어온 문화붕괴의 자연스런 결과였습니다. 지난 초여름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도했습니까? 처참하게 죽어간 것은 아이들의 고귀한 생명만이 아닙니다. 문화교육을 감당할 ‘정신’ 자체가 말소되어 있고, 학교의 안과 밖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문화환경’이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을 황당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재미있는 헐리우드 영화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를 담은 재미있고 좋은 우리 영화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독점시장의 논리로 우리영화 만들기를 방해하고 있고 정부도 그 농간에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영화인들과 시민단체의 저지로 유보되고 있습니다만, 저들은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심을 걷는 우리는 늘 짜증나고 지치고 공해와 사고의 위험 속에 놓여야 합니다. 도시가 문화적으로 건설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폭주족들이 난리치겠습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옥죄는 것은 곳곳에 있습니다. 나라의 문화살림이 관료주의와 비민주적 밀실행정에 붙잡혀 있어 문화의 공공성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쥐도 새도 모르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현정부가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새천년 준비위원회’의 밀레니엄 사업도 이 한 울타리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시장논리로 재단되는 가운데 문화적 향유권이 개인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문화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쾌’들을 밀어내고 삶의 새로운 ‘쾌’(快)들을 찾으십시오. 엄청 비싼 돈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자녀들을 락 페스티벌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그 또한 쾌한 일입니다. 공공도서관들이 책들을 많이 소장하여 지식사회의 문화기반으로 운용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그 또한 쾌한 일일 것입니다. 쾌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예진흥기금과 문화산업기금, 공공미술정책을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창조적인 실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쾌 맛보기는 문화개혁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문화개혁은 곧 삶의 개혁입니다.

3. "시민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선진국에서는 점점 더 비정부기구 시민단체(NGO)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한 반독재 투쟁의 긴 전통을 가지고 있고, 80년대까지는 재야와 학생운동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1987년 6월의 시민대항쟁을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는 재야와 운동권

을 대신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이 민주발전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으로는 너무나 힘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문화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단체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단체가 떠나야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비문화적인 세상을 '문화사회'로 바꿉시다.

'문화연대'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 주부, 실직자, 전문가, 지식인, 문화활동가,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사 등등. 공무원도 환영합니다. '문화연대'는 전문가나 활동가 몇몇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광범하게 참여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NGO'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우고자 합니다.

4. "무엇을 개혁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일까요?

첫째는 '위'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대중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관치적 개혁이며, 민주적 개혁이 아니라 보수적 개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문화개혁'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가운데 문화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국가 및 지방자치체의 문화정책(예술지원, 관변축제, 문화유산, 도서관, 출판, 어문, 문화산업, 생활체육과 문화복지 등)과 문화적 공공영역(방송언론, 영화영상, 도시건축 등)을 개혁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문화예산/행정/제도/법령/관료조직/기관운영 및 문화의정 등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문화자본의 독점 및 소비문화의 논리도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진흥을 표방하면서도 여전히 가둬두고 있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도 쟁취해야 합니다.

둘째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혹은 시민들의 일상문화들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지역문화, 청소년문화, 주부문화, 여성문화, 가족문화, 공간문화, 학교문화, 놀이문화 등도 개혁해야 합니다. 여전히 위계적이며 비민주적인 문화관습들이 많습니다. 민주화세력이 약해지고 사회의 보수화가 다시 기세등등해지면서 폭력적인 군사문화의 잔재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미디어문화 등 상품화의 이익논리에 물들어 있는 시민들의 문화시장을 다양한 인간적 가치들의 소통의 장소이자 호혜적인 장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자치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는 문화개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자기'개혁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성차별이나 권위주의 등의 문화적 보수성과 낡은 봉건적/냉전적 유물들로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외부환경의 개혁만이 아니라 자기개혁을 위한 새로운 철학을 정립하고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예술가/전문생산자/지식인, 문화활동가, 일반시민 사이에 혹은 세대간에 위계적인 관계를 없애며 수평적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연대'는 중앙집중화되지 않고 활동가들과 시민참여의 다양한 거점들이 상호연대로 네트워크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문제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겸허하게 수렴할

것입니다. ‘문화연대’는 출범할 때부터 ‘자기개혁’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들을 위하여 ‘문화연대’는 문화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사회적 의제’로 적극 이끌어내어 공론화하고 직접행동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권력화, 보수화, 독점화, 관료화, 상품화 따위들을 밀어내고 문화의 공공성, 민주성, 연대성, 창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민적 문화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연대’는 비판만이 아니라 대안의 제시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새로운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창구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문적 활동과 시민들의 자발적 욕망이 적극적으로 어울리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사회적 삶은 그 누구도 대표해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각자의 욕망의 흐름에 따라 각자의 삶을 자치적으로 만들어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공생하고 연대하는 문화사회가 되도록 ‘문화연대’는 실천할 것입니다.

5. "어떻게 활동합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화연대’의 조직구성의 기본틀과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위원회 :

‘문화연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및 결정하는 상설의결기구

○ 상설활동기구

<정책기획위원회>

- : ① 21세기 문화정책의 철학과 기본이념 정립
- ②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체의 문화정책 개입과 대안 제시
- ③ ‘문화연대’의 정책과 사업계획 기획 및 조정
- ④ 사회적 의제 개발 및 문화포럼(문화포럼 21) 개최 등

<문화개혁감시센터>

- : ①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기구와 예술진흥기구의 운영 평가
- ② 관료적 문화행정 관행 및 제도와 예술지원정책 개혁
- ③ 공공문화기반시설(도서관이나 출판정책 등) 운영 평가
- ④ 문화예산 낭비 감시
- ⑤ 문화의정 감시 등

<문화행동기획센터>

- : ①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나 이벤트 기획
- ② 타단체와의 연대사업 형식의 퍼포먼스, 이벤트, 전시회, 공연 등 기획
- ③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등

<시민참여자치센터>

- : ① 시민들의 자율적인 문화행사 기획
- ② 취미모임, 모니터모임, 자원봉사모임 등 마련
- ③ 문화교육 활동과 문화지표 조사

④ 시민단체 가입운동과 시민간 네트워크 조직 등

○ 네트워크 위원회

<시청각위원회>

- : ① 영화/애니메이션 정책과 방송정책의 상호연계
(통합시청각정책 수립과 관계법 정비)
- ② 대중음악과 영상, 만화, 게임산업 등의 상호연계와 지원유통정책 등

<공간환경위원회>

- : ① 공간정의 실현과 공간의 공공성 제고
- ② 건축/디자인 정책과 법률제도 개혁
- ③ 공공미술제도 실태 비판과 법제 및 운영 개혁 등

<지역문화위원회>

- : ① '문화의집' 운영 평가 및 지역문화센터 건립운동
- ② 지역 페스티벌 정책 개입과 대안 제시
- ③ 지역별 문화지표 조사와 지역문화발전 계획 수립 등

<청년문화위원회>

- : ① 청(소)년문화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② 정부의 청(소)년 문화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등

<문화유산위원회>

- : ①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② 정부의 문화재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등

<문헌정보위원회> 등(여타 위원회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 : ① 도서관/출판정책의 유기적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② 정부의 도서관/출판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등

- <사무처> : 제활동기구/위원회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 회원사업, 재정사업 등
- <편집홍보위원회> : 격주간 문화신문 발간, 대외홍보, 기타
- <자문변호사단> : 관련법률개정 및 소송활동 자문, 무료법률상담 등
- <경영자문단> : 재정사업과 조직경영 자문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참여가 가능할까요? '문화연대'는 문턱이 없고 민주적입니다. 참여의 경로도 다양합니다. 관심도와 활동력에 따라 위 기구들 중 어디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자치센터'는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먼곳에서 지켜보고 지원하며 정보를 얻는 데 만족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연대'는 회원들을 회비나 회원수 채우는 활용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듯 회비도 많이 걷힐수록 회원수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문화연대'의 능동적인 생성주체여야 합니다. 문화개혁의 근원적인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연대'는 회원들을 개혁의 힘으로 봅니다.

6. "회원 가입서를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문화연대' 회원이 되어주셔서,
회원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창립대회 때 통과되는 정관에 의거하게 됩니다.

별지로 동봉해드리는 '회원가입서'를 써주십시오.
발기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발기인 동의서'를 써주십시오.

1) 일반회원

- ◆ 월 3000원 납입(1구좌 월회비 1000원+문화신문 정기구독료 2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문화연대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표명한다는 의미에서 한 회원의 다구좌 가입을 권장합니다. 다구좌 가입의 경우 월납입금 3000원에 1구좌당 회비 1000원을 추가 납입하시면 됩니다.
- ◆ 회비 납입 및 사용내역은 연말에 정산과정을 거침으로써 회원들의 기여도와 운영내역을 밝히겠습니다.

2) 자료회원

- ◆ 문화신문(기관지)창간호 준비과정에는 월 2000원의 정기구독료이며, 년 24,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회원 혜택

- ◆ 문화연대의 각종 활동기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 문화연대가 주관 및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실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화와 관련된 부당한 사례와 처우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화연대가 주관 및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에 무료 혹은 실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청소년 캠프, 각종 워크샵, 캠페인 활동 등

- ◆ 은행계좌: 국민은행 291-01-0005-075 정희섭(문화연대)

▶ **창립준비위원 명단** **(8월 13일까지 확인된 1차 명단)**

강내희, 강임산, 강요배, 강홍구, 고길섭, 권경우, 권기원, 권혁수, 권혁인, 김광림, 김기중, 김도형, 김동원, 김명준, 김보성, 김봉열, 김상우, 김석만, 김성일, 김수기, 김숙진, 김영철, 김용익, 김우창, 김윤기, 김윤수, 김윤철, 김준목, 김중렬, 김정관, 김정현, 김창남, 김창수, 김채현, 김학원, 김한준, 김혜준, 남인순, 낭희섭, 노복미, 도정일, 류승준, 명계남, 문성근, 민현식, 박경훈, 박삼철, 박승현, 박신의, 박원순, 박인배, 박종관, 박종화, 박진화, 박찬경, 박찬국, 박훈영, 박혜숙, 배금자, 백정숙, 백지숙, 서소은희, 성완경, 손자희, 손철주, 송성섭, 심광현, 안규철, 안미라, 안상수, 안철홍, 양건열, 양기환, 양현미, 엄혁, 여국현, 여운, 오수원, 원용진, 유지나, 윤석양, 윤정현, 이건용, 이기택, 이동연, 이상목, 이상홍, 이상훈, 이섭, 이성욱, 이영욱, 이영진, 이영철, 이용관, 이용철, 이종구, 이은, 이재현, 이종호, 이형용, 이혜영, 이혜경, 이혜란, 임삼택, 임옥상, 임정희, 임진모, 임진택, 정근원, 정기용, 정남준, 정도상, 정준영, 정지영, 정지창, 정태춘, 정희섭, 조건영, 조정숙, 조광희, 조명래, 조상희, 조성룡, 조세희, 조영신, 조한혜정, 조한기, 조현욱, 조희연, 지금중, 채희완, 최민, 최민화, 최범, 최병두, 최석태, 최용목, 최예용, 최준호, 허영환, 홍성태, 홍효숙, 황기돈, 황세준, 황지우 (총 145명)

